



- 주님 부활 대축일 - 2019년 4월 21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795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jb.ucatholic.or.kr](mailto:jubo@ujb.ucatholic.or.kr)



(Resurrection of Christ) Carl Bloch, 1875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며 매일 저녁 9시에 주모경을 함께 바칩니다.

파스카 성야 미사

【제1부 : 빛의 예식】

불 축복과 파스카 초의 마련, 행렬, 파스카찬송

【제2부 : 말씀전례】

제1독서 창세 1,1-2,2 또는 1,1.26-31ㄱ

화답송 시편 104(103),1-2ㄱ.5-6.10과 12.13-14나.24와 35ㄷ(◎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창세 22,1-18 또는 22,1-2.9ㄱ.10-13.15-18

화답송 시편 16(15),5와 8.9-10.11(◎ 1)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3독서 탈출 14,15-15,1ㄱ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략)

화답송 탈출 15,1ㄷㄹㄴ-2.3-4.5-6.17-18(◎ 1ㄷㄹ)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제4독서 이사 54,5-14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ㄱ과 13나(◎ 2ㄱ나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5독서 이사 55,1-11

화답송 이사 12,2-3.4나ㄷ.5-6(◎ 3)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제6독서 바룩 3,9-15.32-4,4

화답송 시편 19(18),8.9.10.11(◎ 요한 6,68ㄷ)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7독서 예제 36,16-17ㄱ.18-28

화답송 시편 42(41),3.5ㄱ나ㄷㄹ; 43(42),3.4(◎ 42(41),2)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서간 로마 6,3-11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음 루카 24,1-12

【제3부 : 세례전례】

성인 호칭 기도, 세례수 축복, 세례 서약 갱신

【제4부 : 성찬전례】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 ● ●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 ● ●

**입당송** 시편 139(138),18.5-6 참조

저는 다시 살아나, 여전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알렐루야.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0,34-37-43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콜로 3,1-4 또는 1코린 5,6-8

**부속가** <오늘은 의무이고, 팔일 축제 동안에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파 스 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 리 아, 말하여라, 무 엇 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 격 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곶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 금 님, 자 비 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음** 요한 20,1-9 또는 루카 24,1-12 또는 24,13-35

**영성체송**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2019 교구장 부활 메시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2-23)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의 어두움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박으시오.”를 외쳤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이거나 군  
사적인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기를 바랐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하늘 나라가 지금 이 땅  
에서 성공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라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 나라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며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큰 가지들을 뺀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  
에 깃들게 된다는 하늘 나라 이야기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슬피 우는 사람의 행복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를 위해 목숨  
을 바치는 위대한 사랑이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생명을 가져오는 위대한 신  
비인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둡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  
새로움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축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  
새기며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부활로 우리 신앙을 견고케 합시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거이며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해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1코린 15,13-14)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절정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과 믿음은 죽음도,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해줍니다. 순교자들을 그 무서운 형벌과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게 해 준 힘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었습니다. 로마 근교에 있는 순교자들의 무덤인 카타콤바의 벽화나 글 가운데 여기저기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기억됩니다.

교회의 복음 선포의 핵심과 본질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을 믿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와 슬픔, 내적 공허와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이 끊임없이 새로 생겨납니다.”(『복음의 기쁨』, 1항)

또한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새로움과 넘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갑니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이사 40,31)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젊으시고, 새로움의 끝없는 원천이십니다.”(『복음의 기쁨』, 11항)

### 부활의 선물인 평화와 용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건네주신 부활의 선물은 평화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제자들은 극에 달하는 두려움과 초조, 좌절과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희망과 생의 의미와 보람이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두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아걸고 극도의 불안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말과 더불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제자들을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 평화로 가득하게 해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을 거쳐 부활 사건의 체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동안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업신여김, 배척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2-23)라는 말씀과 함께 용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평화와 용서는 떼어 수 없는 관계이며, 평화를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평화를 얻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용서였듯이, 평화를 바라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용서 청하고 또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요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왜 하느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열과 배척과 차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사회에 평화는 찾아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용서와 관련해서 볼 때, 부족한 점이 참 많은 듯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차별과 혐오들에 대해서 용서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 하여 큰 소리로 적대하고 배척하는 사회, 인종차별과 혐오로 말미암아 난민들과 이주민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회,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아쉬운 사회,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우선시되지 못하는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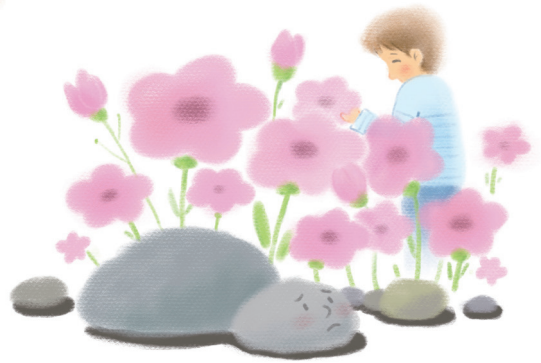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용서의 선물로 우리 사회를 보다 밝고 따뜻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을 모두에게 전합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2019년 부활 대축일

의정부교구장 이기헌 베드로 주교

이기헌

# 민들레 꽃



길가의 자갈 가운데 소년을 짝사랑하는 돌맹이가 있었다.  
 그러나 소년은 돌맹이한테 눈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저 꽃나무 앞에서나 머물다 떠날 뿐.  
 돌맹이는 저도 꽃이 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간절히 빌었다.  
 비로소 하느님의 응답이 있었다.  
 “꽃이 되면 아픔이 있게 되는데 그래도 꽃이 되겠느냐?”  
 “네.”  
 “꽃이 되면 한해살이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도 좋겠느냐?”  
 “네.”  
 돌맹이는 앉은자리에서 풀꽃이 되었다.



드디어 소년의 눈길이 꽃이 된 돌맹이한테 주어졌다. 간혹,  
 그때부터였다.  
 꽃이 된 돌맹이한테 가슴앓이가 시작된 것은,  
 어찌나 심한지 나중에는 머리까지도 하얗져 버렸다.  
 옆의 돌맹이가 말했다.  
 “무엇 하러 꽃이 되어서 그 꼴이 되니?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아픔이 없는 돌맹이가 낫지.”

꽃이 된 돌맹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비록 아프고 한 해밖에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이 중요해.”  
 그러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너의 가룩한 마음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네 자손은 번성하게 되리라.”  
 바람이 민들레 꽃 씨앗들을 둥둥 실어 날랐다. ☼



그림 \_ 구민정 엘리사벳



## 교구장 동 정

4월	21(주일)	15시	주님부활대축일 동두천난민공동체 미사 - 동두천 성당
	25(목)	11시	나루터공동체 축복식
	26(금)	10:3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축복식 - 도담학교 내
	27(토)	16시	체나콜로 대피정 미사 - 후곡 성당
		18시	견진성사 - 봉일천 성당



## 교구 소식

### 한국 천주교의 뿌리 : 중국 만주 성지순례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 밀알이 되신 조선 초대 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님과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

대상 교구민(선착순 30명)

일시 8/21(수) ~ 27(화) 6박7일

장소 서만자, 마가자, 소팔가자, 김대건 기념관, 백두산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비용 옵션포함 약 195만 원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 7,8지구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4/24(수) 10시

장소 대화동 성당

### 5,6지구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4/25(목) 10시

장소 원당 성당

### 2019년 청년전례학교(기본과정) 안내

일시 6/1(토) 14시~6/2(일) 16시(1박 2일)

접수기간 4/4(목) ~ 5/15(수)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 031-850-1460

대상 의정부교구 청년 누구나 (주일학교 청년 교사 포함) <https://cafe.naver.com/youthujb> 공문 참조

### 교정사목위원회 사법형그룹홀 직원모집

모집분야 그룹홀 보호상담교사

모집인원 1명(여)

근무형태 계약직, 2교대

직무 생활지도 및 행정

접수기간 ~4/25(목), 17시 도착분까지

문의 031-856-0215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자격요건 청소년 보호관련 전문자격(청소년 상담 지도사, 사회복지사, 초중등 교사 등)소지자

접수방법 e-mail 지원, [kyojung@ujb.ucatholic.or.kr](mailto:kyojung@ujb.ucatholic.or.kr)

###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4/29(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훈인으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심계자 세라피나

문의 031-850-1507(주말, 공휴일 휴무)



3월 행복충전소 모금액 4,761,713원

모금액 누계 총 772,822,315원 저금통 후원: 031-850-1483

'100원의 행복충전소'는 저소득 아동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미사 · 피정 ▶▶

### 교구 성령새신 봉사회 철야기도회(미사와 함께)

일시: 매주(금) 21:30~02시 마두동 성당(4/26)  
주제: 신재찬과 찬양팀의 찬양 패스티벌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 찾아가는 피정팀 예수수도회 모멘토

첫영성체피정, 초중고, 청년, 교사, 자모, 전신자 피정강의, 엄마와 딸 피정, 일일 신앙캠프 등  
방법: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피정  
문의: 010-4037-1609, 010-7236-4627

### 청년신앙피정

일시: 매월 첫(토) 11시~20시  
장소: 서울가르멜수녀원 피정집  
문의: 010-4149-1853 carmelcenter.kr

### 2019 의정부교구 체나콜로 대피정 안내

주제/강사: 지존하신 성체께 교회와 자녀들을 봉헌하시는 티 없으신 성모성심 /이정윤 신부, 김강정 신부  
일시/장소: 4/27(토) 09시~17시 /후곡 성당  
파견미사: 이기현 주교와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회비: 5천 원(김밥, 물제공)  
문의: 010-9272-4660

### 목주기도 피정

일시: 매월 마지막 주(화)10시~14시  
미사(점심 제공)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 031-952-6324

###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효소단식피정: 5/9(목)~12(일) /28만 원  
성경통독피정: 5/24(금)~6/1(토) /48만 원  
문의: 010-3340-0201/010-4711-0159

### 2019 의정부교구 성령대축제

일시: 5/11(토) 09시~17시  
장소: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경의 중앙전철 노동역, 서둘버스 운행)  
강사: 송용민 신부(인천가톨릭대 교수)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살레시오회 관구장)  
미사: 이기현 베드로 주교의 사제단  
준비: 티켓(5천 원) 및 개인 도시락 지참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 제주 성 이시돌 자언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일시: 5/2~5, 5/8~10, 5/14~17, 5/19~21, 5/23~26, 5/29~31 문의: 064-796-9181

### [성심교육관] 부활절 2박 3일 무료 치유대피정

일시: 4/26(금) 22시~ 28(일) 15시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수도자와 함께하는 수요목주 100단 기도회  
매주 수요일 19:30~익일 1시(미사)

### 예수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루카11,1) // 김용수 신부  
일시/장소: 4/26(금) 10시~15:10 /예수회센터  
문의: 02-3276-7777(예수회 후원회)  
무료, 미사봉헌

### 예수의성모 관상수도회 영성미사 및 영성강의

영성미사: 미사 및 강의: 문호영신부  
일시,장소: 매월 4째주(토) 4/27, 13시(고해성사), 14시(미사및성시간/명동가톨릭회관 7층/가톨릭사자)  
문의: 032-933-7237, 4825

### 가정선교회 <성가정 영성 1일 대피정>

일시: 5/1첫(수) 9:30~16:30  
장소: 서울 명동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사: 김웅열 신부, 이현주 회장  
접수 없음, 회비 없음, 김밥 판매(2천 원), 미사 준비, 개인준비(현장판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6번 출구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  
문의: 010-2367-2297, 010-5674-8511  
대표전화 02-777-1773

###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 월례미사 안내

일정: 4/24(수), 14시  
장소: 교구청 5층 경당  
대상: 교정사목을 후원하시는 모든 신자  
문의: 031-856-0213-5(전화, 문자 모두 가능)

### 꽃동네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소주일

일시: 5/12(일)  
장소: 음성꽃동네사랑의연수원 /도시락 지참  
대상: 유치부~대학일반부  
문의: 043-879-0283(전화신청)

### 마리아니스트 센터 미사안내

성모신심 미사: 매월 첫(토) 11시(5/4)  
후원회 미사: 매월 4째주(월) 11시(4/22)  
위령 미사: 매월 마지막(금) 15시(4/26)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76-17  
문의: 031-926-3090

### 5차 순교자 학교 (주제 : 순교에로의 초대)

일정: 5/11(토)~12(주일), 시작14시, 마침16시  
장소: 정하상교육회관, 044-863-5690~2, 010-8848-5690, 8만 원

###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아래일정은 왕복항공 포함해서 예약가능)  
기간: 4/28~30, 5/4~7(추차도), 5/10~12, 5/15~17(제주성모의밤), 5/19~22(추차도), 5/31~6/2  
접수 : 02-773-1463, 064-756-6009

### 가르멜 기도학교육

매주(월) 8시, 카톨릭러스친구 가르멜영성문화센터  
문의: 010-4149-1853 carmelcenter.kr

### 가르멜 성시간

일시: 매월 마지막주(수) 13:30~16:30  
장소: 가르멜영성문화센터  
문의: 010-4149-1853 carmelcenter.kr



## 교육 · 모집 ▶▶

###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2019 열린세미나

주제: “국제NGO에서 바라본 오늘의 북한과 남북 교류의 방향”  
일시: 5/6(월) 오후 2시~6시(미사포함)  
장소: 신앙교육원(의정부교구청 경내)  
문의: 031-941-6238, 010-9960-5820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활동 참가 가족/단체 모집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운영기시 6~7월)한마음가족캠프(1박2일), 한마음오리엔티어링 교실(1일) 주말학교 야외체험 활동(운영기시 3~11월) 캠핑야영, 오리엔티어링(보물찾기), 챌린지코스/집라인 체험  
문의: 031-840-0742(홈페이지 참조)

###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 자원활동가 모집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 지역 자원활동가 모집 및 교육 실시 일시: 5/14(화) 14시~17시 교육비: 무료  
문의: 031-873-1368 www.ggbb1366.or.kr

###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업무: 회계 및 제반업무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졸업증명서  
마감: 5/3(금) 우체국 소인까지(우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처: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4층 환경농촌사목위원회  
문의: 환경농촌사목위원회 031-850-1492

### 자비메르세다리아스수녀회성소안내

대상: 하나님의 자비와 해방의 삶을 살고자하는 여성  
장소와일시: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요  
문의: 010-9492-0295(체세실리아수녀)  
www.mercedarias.kr

### 2020-21영성코스 사전안내

장소: 가르멜영성문화센터  
문의: 010-4149-1853(carmelcenter.kr)

###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19 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원서접수: 5/7(화)~20(월) 17시  
입학전형: 6/3(월) 14시  
문의: 가톨릭대학교교학팀 02-2258-7076

**금촌2동성당 교종미사 반주자 모집**

문의: 김 요셉 010-3776-1207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영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타우영성심리상담소(문의:010-3419-5604)**

개인심리상담(불안,우울,분노,스트레스,관계&성격), 부부및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신앙및영성상담, 수도자심리상담전문가, 상담심리박사 직접상담  
장소: 일산 탄현역 5분거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19 후기(주간) 신입생모집**

석사: 신학, 철학, 사회복지학, 가톨릭사회복지학 ○○명 /박사: 신학(교의/조직, 영성, 환경(생태)),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명 /문의: 02-705-8668  
일반및편입학전형: 4/22(월)~5/2(목)  
전형일: 5/17(금)  
일반및편입학2차전형: 5/20(월)~30(목)  
전형일: 6/14(금)  
<http://gsot.sogang.ac.kr>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만 원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우: 04535  
전화: 02-2274-1843,4 /cdcc.co.kr

**성경 통독 모임 (바오로 서간)**

대상: 젊은이 미혼 여성  
일시: 5/11~6/29 매주(토) 15:30~17시(8주)  
장소: 서울 포교 베네딕도 수녀원  
문의: 010-6259-6364

**전진상영성센터**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02-726-0700  
전문심리상담 :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심리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영어성경: 마르코복음  
일시: 5/3~7/19 매주(금) 11~1시(문요안나 수녀 메리놀수녀회) 가치와 동기 그리고 새로운 전망세우기 작업  
일시: 5/1~29 매주(수) 오전반 10시~1시, 저녁반 19시~22시  
카드와 도표로 배우는 수지애니메이션  
일시: 5/11, 5/25 매월 2,4주 (토) 10~17시

**2019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안내**

일시: 4/29(월)~30(화),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분 /주관: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남양주시 불암산로99)  
문의: 010-8985-9971, 등록비: 4만 원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사회복지법인 바다의 별)  
문의: 033-458-9422(문띠노인요양원)

**2019 DMZ 국제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일시,장소: 8/16~8/22, DMZ일대  
대상: 평화에 관심 있는 만19~27세 젊은이(영어가능자 우대)  
인원: 72명(국내외 각 36명씩), 참가비: 5만 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 접수, 5/31까지  
문의: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2-753-0815, <http://caminjok.or.kr>

**사별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트랙 3기 모집 안내**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  
일시: 5/25(토)~7/13(토) /매주(토) 14시~17시(8회)  
장소: 성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남양주시 불암산로 99)  
문의: 010-8985-9971, 031-575-9971

**2019년 제5회 가톨릭전례음악(시원)하계세미나**

과목: 전례발성,합창지휘, 그레고리오성가및 반주법, 시편창법, 시간전례  
강사: 이호중 라파엘의 12명  
회비: 15만 원(1박4식)  
일시및장소: 7/26(금)~7/27(토), 파주 참회와 속죄의 성당 /문의및접수: 010-8417-0701, 한국가톨릭전례음악아카데미  
<http://cafe.daum.net/Musicasacra>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가톨릭경영자과정 제22기**

새롭게 개편된 가톨릭인자를 위한 최고의 경영학·영성 교육과정  
대상: 기업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국공립기관 임직원, 자영업, 성직자·수도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  
과정의 기간: 5/2 개강. 매주(목) 오후 수업 /등록금 : 400만 원  
교과과정 소개 홈페이지(<http://www.sbs.ac.kr>) 내 비학위과정>S-CAMP 참조  
문의: 02-705-8030 / sgscamp@sogang.ac.kr  
주임교수 문의: 010-7209-3421



**안내 · 기타 ▶▶**

**2019 가톨릭대학교 예수성심성당 혼인예식**  
웨딩 상담 및 문의: 아라마크 010-3362-5401

**가톨릭여행사 02-319-2533**

5/14 독일 동유럽 4개국 12일 365만 원  
5/27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6/3 독일 발칸 메추고리에 12일 385만 원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5/21 이스라엘 일주 9일 360만 원  
5/23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 원  
6/2 터키 그리스 13일 395만 원  
6/12 발칸반도 12일 375만 원  
문의 : 02-2281-9070 /[www.cttour.org](http://www.cttour.org)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6/4, 9/17 이스라엘,요르단10일 289만 원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지10일 335만 원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10일 299만 원  
6/23, 9/1 나가사키4일 949,000원

**제 54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7/21~8/10(3주)  
대.일반: 6/30~8/11(6주)  
공통: 세계 연수생들과 연수 + 다양한 경험  
설명회: 5/11(일) 2시 명동성당내 가톨릭회관 2층 강당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시이엔티 02-3446-4253

**고양필하모닉 창단2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일시: 6/9(일) 17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출연: 지휘-안현성, 현연-바이올린 박지혜  
문의: 031-971-5970  
고양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예수회	4/27(토) 15:30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010-3324-0731 /vocation.jesuits.kr
	가르멜수도회	매월	지역별 장소	010-9986-5680
	살레시오회	4/27(토)~28(일)	서울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신길동)	010-5159-3949



## 고해성사(2) :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 20)

왕태연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고해성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고해성사의 의미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히 고해성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적인 이해는 고해성사에 대한 불편함과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죄를 성찰하거나 반성하려는 노력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통해 얻게 되는 용서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은 하느님 사랑의 위대하심을 알게 됨으로써 죄의 두려움과 무게 때문에 떨게 되고, 죄를 지어 하느님을 모욕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32항)

따라서 고해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느님의 용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또 다른 ‘마음의 빛’을 남겨두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온전한 화해와 죄로 인해 단절된 당신과의 친교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화해와 친교를 이루는 주체가 바로 하느님 자신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해 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 많은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신 것 또한 바로 그러한 적극적인 용서와 친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 동안 죄를 용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용서의 결과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멀어졌거나 추방되었던 그들을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 주는 명백한 표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더구나 그들의 식탁에 함께 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용서와, 하느님 백성의 품으로 돌아오는 복귀를 동시에 표현하는 놀라운 행위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443항)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빚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2코린 5,19~20) ☸